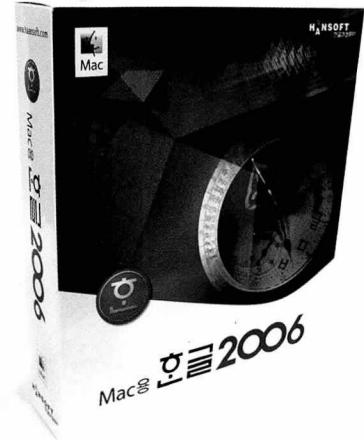


# 맥에 또 하나의 날개를 달다

## 맥용 한글 2006



한글과 컴퓨터(대표이사 백종진, www.haansoft.com)는 최근 'Mac용 한글 2006'을 출시했다. 'Mac용 한글 2006'은 기존 PC용 워드프로세서인 '한글'을 바탕으로 애플사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태어난 야심작이다.

이로써 매킨토시 사용자들도 기존의 문서 마당, 한컴사전, 각종 글꼴 등 '한글'의 놀라운 기능들을 매킨토시에서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일반 업무와 디자인 업무를 병행해야 했던 사람들에게는 매킨토시만으로 모든 업무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매킨토시용 소프트웨어들이 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축하할만한 일이다. 그 동안 매킨토시는 디자인업무에서 놀라운 성능을 나타냈으나, 한편으로 문서작성이거나, 금융업무, 인터넷 검색에서는 PC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성능을 보여 왔다. 그래서 매킨토시는 절름발이 형태로 남아, 디자이너들에게 큰 불편을 주었다. 매킨토시 사용자들은 일반 PC의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반 PC와 운영체제를 구입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하는 번거롭고 비경제적인 일들을 반복해야 했다.

'Mac용 한글 2006' 패키지에는 메뉴얼과 CD 2장이 들어 있다. 'Mac용 한글 2006'은 매킨토시 G4/G5, OS 10.3/10.4버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아직까지 국내 대부분의 매킨토시가 G3와 OS9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의아한 점이 있지만, 애플사에서도 G3의 판매중지를 발표했기 때문에 한글과 컴퓨터도 일부러 그 쪽을 공략하



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을 보인다.

'Mac용 한글 2006'이 발표되고 어떤 매킨토시 사용자는 '한글과 컴퓨터는 hwp용 컨버터를 개발하는 것이 낫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그 질문은 PC를 바탕으로 작업을 하고 매킨토시와 공유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일견 일리가 있는 말이나, 매킨토시의 자립성의 측면에서 보면 단편적인 이야기가 된다.

다시 말해 'Mac용 한글 2006'은 매킨토시가 디자인용 컴퓨터가 아닌 일반 문서 작성과 공유가 가능한 컴퓨터가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Mac용 한글 2006'에는 기본적으로 '한글2006'이라는 워드프로세서와 '한컴사전'이라는 전자사전, 그리고 각종 트루타입 글꼴, 한글 글꼴을 제공하고 있으며 '문서마당', 각종 클립아트, 그리기마당, 각국 사전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도 'Mac용 한글 2006'에는 기존 한글의 다양한 기능들이 숨겨져 있다. 강력한 문서 불러오기 기능으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을 대부분 불러올 수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상의 문서까지도 형식 그대로 가져와 편집할 수 있다. 또한 기존 한글에서 할 수 있었던 복잡한 표 그리기, 차트 표현하기, 페이지쪽수 매기기 등이 가능하다.

'Mac용 한글 2006'은 그 동안 국내에서 이뤄졌던 작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 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부분의 작업이 '한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사용자들이 한글의 인터페이스에 익숙해있기 때문에 이는 큰 강점이

**1. 맥용한글\_초기화면**

**2. 맥용한글로고**

**3. 개체속성지정**  
글상자 개체에 여백/캡션, 선, 채우기와 같은 개체 속성 지정

**4. 그림자르기**  
문서에 불러온 그림은 그림 전체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림의 일부분만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림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면 그림의 일부분만 쉽게 잘라 쓸 수 있다.

**5. 그림크기조절**  
문서에 그림을 삽입한 후에도 그림의 크기를 조절하여 그림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6. 꼬리말넣기**  
쪽의 맨 위와 아래 한두 줄의 내용이 쪽마다 고정적으로 반복되는 영역의 내용을 머리말, 꼬리말이라고 한다. 머리말, 꼬리말에는 보통 책의 제목, 그 장의 제목, 쪽 번호 등을 넣는다.

**7. 단설정**  
단단을 사용하면 각 단의 너비가 서로 단을 만들거나 한 쪽안에서 단 수가 다른 단을 만들 수 있으므로, 문서가 정돈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 보다 많은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8. 도구상자에서스타일지정, 스타일대화상자**  
자주 사용하는 글자 모양이나 문단 모양을 미리 정해 놓고 쓰는 것을 스타일(Styles)이라고 한다. 스타일을 만들어 놓으면 필요할 때 그 스타일을 선택하는 동작만으로 해당 문단의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다.

**9. 맞춤법검사, 맞춤법검사교정설정대화상자**  
맞춤법 사전은 입력된 글자의 맞춤법을 검사하는 것으로 한글은 사용자 고유의 사전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한글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고유명사 등을 등록해 사용하면 맞춤법 검사를 할 때 좀더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다.

**10. 문서예제\_사업소개서**

**11. 문서예제\_회사소개서**

**12. 차례만들기**  
차례 만들기는 단행본이나 논문 작성 등에 꼭 필요한 기능이다. 차례는 본문의 제목, 표, 그림, 수식 등이 들어 있는 줄을 한 곳에 모아, 각 줄마다 본문 중에서 어느 쪽에 위치하는지 쪽 번호를 붙여 주는 것이다.

**13. 찾기**  
편집하고 있는 문서에서 특정한 낱말(문자열)을 찾는다. 찾기 대화 상자에서 선택 사항 기능을 이용하면 더욱 자세하고 다양한 검색을 수행할 수 있다.

**14. 표\_셀테두리배경지정**  
문서에 표를 삽입한 다음 셀 테두리/배경 대화 상자에서 표의 테두리와 배경 속성을 지정할 수 있다.

**15. 표\_셀테두리배경지정메뉴**  
표를 선택한 다음 빠른 메뉴에서 셀/테두리 배경 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

**16. 형광펜기능**  
형광펜은 반투명한 색을 글자 위에 적용하는 기능으로 문서에 강조해야 하는 내용이 있을 때 형광펜을 적용하면 마치 종이 문서에 형광펜으로 그어 놓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될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한글의 강력한 기능들은 매킨토시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니버설 버전이 아니고, 아직 가격이 20만 원대라는 것이 선택을 망설여지게 한다. 하지만, 한글과컴퓨터사

에서 구매사용자를 위한 지속적인 이벤트와 마케팅을 벌여나가고 있고, 효율적인 문서관리와 업무관리가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면 'Mac용 한글 2006'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김정상 기자 sang@print.or.kr